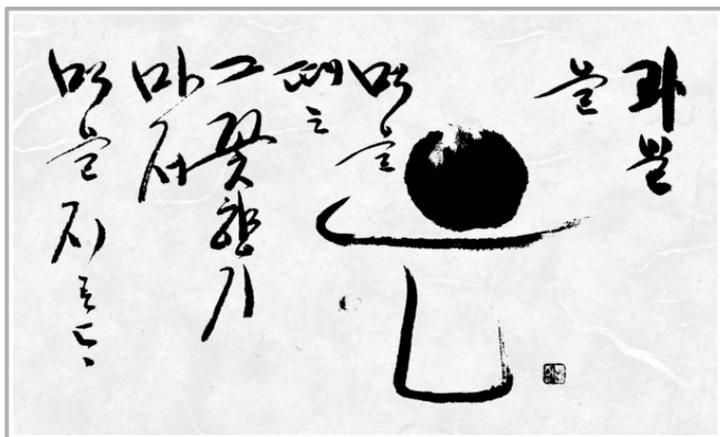


마음 · 세상 · 자연

맑고 향기롭게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움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



2010 / 12

맑고 향기롭게 서울 지부 송년회

12월 22일(수) 저녁 7시 길상사 설법전



“ 2010년의 끝자락에서 반갑고, 감사한 만남을 갖고자 합니다.
맑고 향기롭게 서울 지부의 송년회에 회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올해 송년회는 깨달음과 나눔으로 청정한 나를 기르고 그 향기로 사회를 맑고 향기롭게 일구는 삶을 살자시던 법정 스님의 뜻을 되새기며, 회원 간 작은 행복을 누리는 시간도 마련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 1부(저녁 7:00~7:30) : 서울지부 총회
 - 2010년 실적 보고
 - 2011년 사업 계획 보고
- ◆ 2부(저녁 7:30~9:00) : 만남의 시간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사)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10 / 12

다시 읽는 산방한담 / 법정	4	자연인이 되어 보라
이달의 법문 / 덕현	7	웃기의 인연
생명칼럼 / 우희중	10	맹구우목의 생태적 인간
산골만화 / 정태경	13	연탄
채식으로 세상보기 / 이성학	14	30개월의 소, 40년의 소
생태 돋보기 / 최원형	16	겨울눈, 겨울나무에서 봄나무어로
사색의 뜰 / 민일영	20	아들과 함께 걷는 길
맑고의 나눔현장 / 이성학	27	노래에 젊음을 싣고, 희망을 싣고
템플스테이 소식 / 모이라	30	마당 쓰는 윤력, 마음 닦는 청소
나누는 기쁨 / 각 봉사모듬	32	11월 활동
맑고 향기롭게 활동 소식	37	서울모임
	43	부산, 대구, 경남, 광주모임
여기는 길상사	46	12월의 길상사 소식 모음
이런저런 얘기	48	알뜰한 시장, 알뜰한 마음

표지사진 : 法頂스님 禪墨展 中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 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0년 12월 1일 발행 / 통권 190호 / 등록번호 라08708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여운현 / 편집장 이성학 /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7 전송 741-4698 / 인쇄인 황두천 / 인쇄처 계명문화사 / 부산모임:(051)898-2672~3 / 대전모임:(042)823-0770 / 경남모임:(055)266-0170 / 광주모임:(062)236-3129 / 대구모임:(053)753-8883 / <http://www.clean94.or.kr> E-mail : wlotus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간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6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E-mail : kilsangsa@hanmail.net



自然人이 되어 보라

「텃빈 충만」 중에서

法 頂 (스님)

요 며칠 동안 겨울비가 촉촉히 내렸다. 오랜 가뭄으로 땅이 메마르고 숲속의 나무들도 까칠해 있었는데, 이번에 내린 비로 땅에 물기가 스미고 나무들도 생기를 되찾았다.

오랜만에 비 내리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 뽐뽐했던 내 속들도 촉촉히 젖어 드는 것 같았다. 끼니를 챙기기 위해 부엌에 들어가서도 전에 없이 휘파람이 새어 나오고 콧노래가 저절로 흥얼거려지려고 한다.

자연의 은혜란 이렇듯 우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윤기를 보태준다. 알맞게 내린 비와 앞산에 서리는 안개에 댓잎에 맺힌 이슬방울이 메마른 대지와 수목만을 적셔주는 게 아니라, 황량하고 거칠어진 사

람의 마음까지도 촉촉하게 젖게 해주는 것이다.

어제는 뜰 구석구석에 널려 있던 가랑잎들을 갈퀴로 긁고 주워냈다. 얼어붙었던 낙엽이 볼썽사납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이번에 내린 비로 흙이 녹는 바람에 청소를 할 수 있었다. 오늘은 비를 들고 뜰을 한바탕 말끔히 쓸었다. 물기가 배어 있는 땅을 싸리비로 쓸고 있으니 내 마음이 지극히 평온하고 정결해지는 것 같았다.

비와 걸레를 들고 하는 청소란 단순히 뜰에 쌓인 티끌이나 방바닥과 마룻장에 낀 때만을 쓸고 닦아내는 일만은 아니다. 쓸고 닦아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 마음속에 묻어 있는 티끌과 얼룩도 함께 쓸리고 닦

이는 데에 청소의 또 다른 의미와 묘리가 있을 법하다.

이런 청소의 의미와 묘리를 생활에 여유가 있는 일부 도시 사람들은 스스로 포기를 하고 있다.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일손이 달린다고 해서(사실은 게으른 변명이지만), 자기 자신의 마음의 세척을 청소부나 가정부에게 떠맡기고 만다. 청소부나 가정부의 어려운 생활을 돕는다는 뜻에서는 좋을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어디까지나 생활수단으로써 시간당 얼마를 받는다는 조건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지 삶 그 자체의 의미와 묘리 쪽은 아니다. 그러니 그분들에게는 그분들에게 알맞은 일거리를 주어야 한다.

자신이나 가족들이 쓰는 방의 청소까지 타인의 손을 빈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이 아닌가. 또 그 청소를 주부들만이 전담한다는 것도 이상하다. 자신의 생활환경은 자신의 손으로 정리정돈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기풍이 삶의 질서가 되어야 한다. 내 자신이 배가 고프는데, 누가 대신 음식을 먹어준다고 해서 내 배가 부를 수 있겠는가. 내 목마름은 내 발로 걸어가 물을 떠서 마실 때 해소된다. 내 몸소 우물가나 수도 쪽에 가지 않고 남을 시켜 물을 가져오게 한다면, 그 목마름은 잠시 다스려질 뿐 원천적으로 갈증은 해소되지 않는다.

... (중략) ...

아무리 바쁘고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에 살지라도, 때로는 되돌아보며 사람의 일을 살펴보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보다 인간적인 삶인지를 가끔은 헤아려보아야 한다.

내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맞은쪽의 처지에 내 자신의 삶을 비쳐볼 수도 있어야 한다. 왜

냐하면 사람이란 저마다 자기 몫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다.

날씨가 물론 이대로는 풀리지 않을 것이다. 봄이 오기까지는 몇 차례의 모진 추위가 또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요 며칠 동안의 푸근하고 촉촉한 날씨는 한겨울 속에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

새해에는 이번에 내린 겨울 속의 비처럼 메마르고 황량한 인간의 대지를 촉촉하고 부드럽게 적셔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또한 정치와 경제, 그리고 각 분야의 담당자들이 해야 할 신성한 의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뜰에 비질을 하다가 허리를 펴고 앞산을 보니 엇그제처럼 오늘도 달무리 같은 안개가 산마루에 서려 있다. 숲에서는 핑이 뫼를 치며 운다. 한동안 보이지 않던 다람쥐도 날씨가 풀려서인지 뽀르르 돌담위로 뛰어간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함께 살아간다. 

길상사 개산(開山) 13주년 기념 법회안내



가난한 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법정스님의 창건 기념 법문이 세간에 큰 감동을 주며 맑고 향기로운 도량 길상사가 일주문을 활짝 연 것이 어느새 13년 전의 일입니다. 그날의 감격을 다시 한 번 또렷이 되살리며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의 창건 13주년 기념 법회를 오는 12월 12일(일) 오전 10시 설법전에서 합니다. 이 기쁘고 감사한 자리에 사부대중의 수희동참 있으시길 바랍니다.

- 일시 : 12월 12일 오전 10시
- 장소 : 설법전



옷깃의 인연

德賢 (이사장)

나 어릴 때, 시골 농촌에서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가끔 무명옷이나 삼베옷을 입고 지냈다. 그 옷들은 대개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손수 만든 것들이었다. 다들 자기네 밭에 목화를 심어 가꾸고 가을 들녘 온 밭에 하얗게 핀 목화솜을 따 모은 다음 바쁜 가을걷이가 한 고비 넘으면 집집마다 물레질을 하여 무명실을 잣고, चु고 적요한 겨울밤, 고독한 여인네들이 뼈격대는 베틀에 앉아 한 올 한 올 무명천을 짰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렵게 어렵게 얻어진 무명 몇 필로 마침내 가족들의 옷을 솜씨대로 지은 것이다.

삼 농사는 따로따로 지어도 삼실을 얻는 과정은 약간의 공동작업이 필요했는데, 그것은 동네 사람들이 날을 잡아 큰 가마를 만들고 거기서 수확해 모은 삼대를 같이 짜 내는 일이었다. 나머지 공정은 결국 삼베를 얻거나 옷을 짓는 과정이 무명과 비슷했던 것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집마다 봄가을로 뽕나무를 기르고 누에를 쳐 수확한 누에고치를 집하장에 내다 팔기도 했는데 비단을 짜는 일까지는 본 적이 없다.

이 모든 일들은 내 유년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었지만 지금은 몹시 아련해져 바랄 대로 바랜 기억들이다. 생각해 보면 결코 길지 않은 한 인간의 생이 얼마나 많은, 그리고 얼마나 빠른 시대적 변화를 스쳐가는지 실감이 나기도 한다.

전근대 농경사회의 자연스러운 흐름은 삶과 일과 놀이를 통하여 세상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인연법(因緣法)을 찬찬히 가르친다. 사냥과 유목, 침략과 약탈 대신 씨 뿌려 가꾸어야 거두는 이치를, 그리고 모든 것들이 자기정체성만을 고집하여 대립하고 경쟁하고 싸우는 대신, 서로서로

깊이깊이 맞물리고 상호 의존성 속의 교감과 나눔을 타고 흘러가야 하는 것임을 뺏속에 체득시킨다.

문익점의 붓두껍에서 나온 묵화씨에서 모든 묵화숨이 거뒤틀리고, 똑같이 가볍고 하얗고 연약한 묵화숨에서 물레질로 자아져 너와 나는 각기 다른 질기고 긴 실이 된다. 그리하여 베틀에서 어떤 가닥은 씨실이 되고 어떤 가닥은 날실이 되었다가 서로 정교하고 질서 있는 조합을 거쳐 다시 실의 이름을 잊고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그리하여 온갖 쓰임새를 지닌 천으로 태어난다. 선의 2차원에서 면의 3차원으로 건너온 이 천이 강보가 되기도 하고, 가족의 옷자락이 되기도 하고, 상복이나 주검을 싸는 수의가 되어 3차원, 4차원 인간생활의 모든 단면을 지탱한다.

이 무아(無我)와 상의상관(相依相關)의 진리는, 한 개체가 생성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인으로 성장하기까지 그리고 서서히 늙어가고 마침내 사멸하기까지, 전체사회의 물과 우주의 질서로서 매우 아날로그적으로 침투하고 아주 평화롭게 녹아든다. 그 결과 개체와 개체의 연결, 개체와 전체의 연결 또한 울울이 다 완전한 유기적 감동과 조화의 아름다움이 흐른다.

산하와 들판 대신 콘크리트나 철제의 박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아날로그적인 모든 수고로움이 버튼 하나를 누르는 디지털의 간편함으로 대체된 시대에 이제 21세기의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항상 버튼을 잘못 누르지 않을까 하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점차 눌러야 할 버튼이 많아져 지쳐가고 있다. 곧, 소중한 하루하루와 아름답고 생기 넘치는 인체의 힘을 오직 버튼 누르는 데 온통 탕진하게 될지도 모른다. 가끔 전자오락실에서 버튼만 누르다 죽는 사람도 있다.

스키너의 실험상자에서 이루어진 무서운 실험이 있다. 상자 속에 들어온 쥐는 여기저기 다니다가 우연히 한 구석에 놓인 페달을 밟는다. 그 순간 전류가 흐르고 그 전기 자극은 코드를 따라 쥐의 뇌 속 쾌감을 느끼는 지점을 건드린다. 페달을 밟으면 머릿속에 짜릿한 쾌감이 온다는 것을 쥐가 조건반사를 통하여 배우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전근대 농경사회의 자연스러운 흐름은 삶과 일과 놀이를 통하여
세상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인연법(因緣法)을 찬찬히 가르친다.

사냥과 유목, 침략과 약탈 대신
씨 뿌려 가꾸어야 거두는 이치를, 서로서로 깊이깊이 맞물리고
상호 의존성 속의 고감과 나눔을 타고 흘러가야 하는 것임을
뺏속에 체득시킨다.

결국 그 쥐는 식음을 전폐하고 폐달만 밟아대다가 며칠 안 가 죽는다.

디지털의 버튼으로 벌어들인 시간은 우리 머릿속의 망상처럼, 간편한
듯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소모시킨다. 그것은 독재자의 전횡처럼 우리
사이에 금을 긋고 가르고 폭력을 휘두른다. 그 말과 기호의 시간은 유
리(遊離)의 시간이요, 소외의 시간이다. 그러나 존재의 시간은 어머니의
것. 낳고 기르고, 살아 두리번거리며 외로이 헤매는 것들을 감싸는 강보
같은 것. 땅에 배를 찰싹 붙이고 가는 달팽이의 아날로그, 진리의 시간
이다.

네팔에 두 번 갔었다. 첫 번째 갔을 때 그들은 오나가나 ‘레쌘삐리리
(Rresham firiri)’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것은 7년 만에 두 번
째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바람에 날리는 비단자락처럼’이라는 뜻이
라고 들은 듯하다. 레쌘삐리리 레쌘삐리리 / 우레라 자우끼 다라마 번장
/ 레쌘삐리리...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가락과 율조림을 세월이 가도 똑
같이 좋아할 수 있을까. 아이처럼.

임태경의 ‘웃기’이라는 노래도 들을 만하다. 엄마여, 누이여, 옛 시간
이여 / 우릴 다시 그대 품에 부르라 / 그대 옷자락에 안겨 심장의 리듬을
다시 배우게 하라 / 젖을 먹고 자란 것들은 다 칼날 앞에서 떠나니... 우
리 웃기 스친 인연으로 이렇게 시간 속에서 만났다네. 

※ 경향신문 11월 15일 ‘정동 에세이’에 실린 스님의 글입니다.



맹구우목의 생태적 인간

우 희 중

법명 여산.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공동의장. 송광사 현전 스님의 유발상좌로 '무'자 화두로 간화선 수행을 했다. 정부의 최고기수 입정책을 비판하며 「생명과학과 선」 등의 저서가 있다.

세상엔 생명체로 가득 차 있다. 아직 인간의 지식으로는 얼마만한 수의 생물종이 있는지 다 헤아리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약 1,000만 종의 생물 다양성이 있을 것으로 어렵잖아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생물의 다양성 외에도 UN에 의하면 2050년도에는 인간이 약 90억을 넘길 것으로 추정한다. 물론 이러한 생명체의 숫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우주의 역사, 그리고 지구의 역사와 함께 하고 있다. 우주의 150억년의 시간, 짧게는 지구 나이인 약 45억년의 긴 시간의 누적을 담고 있는 결과물이기도 하다.

서양 근대과학이 지닌 전형적인

유물적 환원론에 근거한 사회생물학(Sociobiology)에서는 이러한 생물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한 생명체의 삶으로 나타나는 생명현상에 대하여 단순한 유전자의 자기확산 과정이라고 말했다. 즉, 생명현상은 이기적 유전자의 확산 현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20세기 분자생물학의 발전에 힘입은 사회생물학자들은 진화에 있어서 계통의 점진적인 유형을 선호하며, 인간 몸과 정신마저 유전자인 DNA에 모두 프로그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이기적 유전자'나 '만들어진 신'을 쓴 리처드 도킨스나 '개미', '통섭' 등의 책을 낸 에드워드 윌슨 등의 사회생물학자들이 알려져 있다. 이들 사회생물학자들

에게는 삶이나 문화와 같은 인문학과 사회과학, 더 나아가 예술마저도 언젠가는 생물학으로 설명될 것으로 주장한다. 이렇게 20세기 말에 등장한 사회생물학은 당시 막 시작되던 초기 분자생물학의 영향을 받아 유전자가 모든 생명 현상을 발현하는 데 주역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따라서 진화는 유전자의 진화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고집하게 된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어 진화에서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인 적응이라는 면에서 다양한 복잡계적(Science of complexity) 입장과 후성학(epigenetics)의 대두, 그리고 유전자 조절 기능의 microRNA 등의 등장에 의하여 생명에 대한 단순한 환원론적 입장의 사회생물학은 이미 한계가 지적되어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인간은 유전자의 지배만으로 머문 것이 아니라 창발현상(emergence)에 의하여 스스로를 성찰하는 생명체로 도약하였다. 이 점이 못 생명과는 다른, 인간만의 고유성을 지니게 되는 지점이기도 하며, 이를 비유하

여 불가에서는 맹구우목(盲龜遇木)의 비유로 설명한다. 무한한 자기 증식으로 나타나는 유전자에 치우친 생물학적 삶으로부터 스스로를 들여다보아 단순히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나 생활을 하기보다는 주변을 돌아보며 더불어 갈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한 것이다. 물론 스스로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역시 문화유전자라고 하는 밈(meme)으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호칭의 문제에 가깝다.

모든 생명체가 상호의존하고 있는 생태계 내에서 그동안 인간은 부처님이 지적한 스스로 성찰하는 동물로서의 맹구우목의 소중함을 잊고서, 생태계가 지닌 관계성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 왔다. 마치 지구의 주인인 것으로 착각하고 다른 생명체에 대하여서는 무지(無知)라는 무명(無明) 내지 폭력을 행사해 왔다. 2004년 초 발간된 네이처(Nature)지에 실린 논문에서도 2050년경에는 환경 변화에 따라 수백만종의 생물종이 사라질 것을 예측했다. 물론 지구 역사상 많은 생물종이 여러 이유로 인해 사라져왔고 또 한

특히 인간은 유전자의 지배만으로 머문 것이 아니라
 창발현상(emergence)에 의하여
 스스로를 성찰하는 생명체로 도약하였다.
 이 점이 못 생명과는 다른,
 인간만의 고유성을 지니게 되는 지점이기도 하며,
 이를 비유하여 불가에서는 맹구우목(盲龜遇木)의 비유로 설명한다.

번 생겨난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멸하는 이치에서 본다면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급
 속한 생물종의 사라짐은 단순한 자
 연스런 도태과정이 아니라 인간의
 무명이 빚어낸 생태계의 혼란이며,
 우리 모두 그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다. 이는 비단 동식물만의 문
 제도 아니고, 인간만의 문제도 아
 니다. 상의상존하고 있는 서로의 문
 제이자 못 중생의 문제이다. 불자
 로서 이 문제를 염려한다면 무엇
 보다 생명현상이 근거하고 있는 관
 계성을 철저히 인식해야 한다. 또
 건강하고 균형 잡힌 생태계 유지
 를 위해서 생산성과 효율 추구의
 신자유주의적 사회 속에서 각 개
 인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성찰해
 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생명 존중

이라는 부처님 말씀에 합당한 자
 세이자, 동시에 일상에서의 구체적
 이고 실천적인 고민이다. 못 생명
 을 위한 치열한 자기 고민이 선행
 될 때, 인간의 개발 논리에 의거해
 서 진행되고 있는 사대강 사업에
 대해 종교계가 반대할 수밖에 없
 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

12월 삼천배 철야 정진

- 일시 : 12월 11일(토) 저녁 8시 30
 분 ~ 이튿날 새벽 4시
- 장소 : 극락전
- 인례 : 덕암거사
- 준비물 : 물병, 땀 닦을 수건, 좌
 복이 땀에 젖지 않게 감쌀 예불
 보(또는 수건)
- 동참방법 : 시간에 맞춰 극락전으
 로 오시면 됩니다.
- 문의 : 종무소 3672-5945



연탄

정태경



결국 연탄을 들었다.



떨감만으로 한겨울 나기가 불안했다고 할까?
떨감 구하기도 쉽지 않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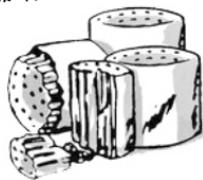
연탄에 불붙이는 것이 왜 이리도 어려운지 몇 번을 실패하고 겨우 불을 붙였다.
또 연탄 갈아주는 것은 왜 이리도 자주 있는지 그래도 방은 참 따뜻하더라.

제가 된 연탄을 그냥 쓰레기 취급하기엔 너무 미안했다.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떠오른다.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글쎄요…?





30개월의 소, 40년의 소

이 성 학 (기획실장)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미국은 끝내 우리에게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전면수입을 요구했다. 쇠고기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애초의 약속을 뒤집은 것. 이렇게 미국이 발목을 잡음으로서 한미 FTA의 추가협상은 성과 없이 끝났고, 이 문제는 여전히 협상의 걸림돌로 남고 말았다. 여차하면 이해관계에 따라 쇠고기가 양보될 지도 모르니 필자는 착잡함을 넘어 일말의 불안함마저 감출 수가 없다.

‘30개월 이상의 소’는 2년 전 우리 사회의 민감한 문제였고, 당시 논란의 핵심은 광우병이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2년 내외의 쇠고기는 안전하지만, 국내에 수입되는 30개월이 넘는 쇠고기는 위험하다는 주장은 우리 사회를 크게 뒤흔들었다. 연일 계속되는 촛불집회, 광우병에 대한 뜨거운 설전, 급기야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라는 제도까지 낳았다. 잠잠한 듯한 쇠고기 문제가 이번에 다시 도마에 올랐으니 어찌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있겠는가. 현재 미국에서 30개월을 넘어 도축되는 소는 전체의 10% 정도로 추정되며, 자국에서는 30개월 이상의 소는 애완동물 및 가축사료의 사용으로도 금지하고 있는데 이런 처치 곤란한 고기를 잘 따지지 않는 나라에 수출하여 처분하려고 하는 것이다.

성장촉진제를 섞은 사료를 먹고 2년 만에 몸집만 불린 소와 그보다 6개월을 초과하여 산 소가 인간세계에서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필자는 2년과 2년 반 이상의 차이를 인간과 비교하여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인간으로 치자면 소의 2년은 완전 성인이 되기 전인 청소년 시절에 해당될 것 같고, 2년 반 이상은 완전 성인이 된 20세가 넘는 나이가 될 것이니 이왕 잡아먹으려면 청소년 시절 쯤 잡아먹어야 살결도 부드

럽고 안전하다는 게 아닐까. 30개월 전에 도축되어야 안전하다는 인간의 기준에 따라 지금 많은 소들이 2년 내외로 생을 마감하고 있으니 그들의 업보가 참으로 가혹하기만 하다.

소의 평균 수명은 얼마나 될까? 백과사전에는 평균수명이 20년이고 관리만 잘하면 그 이상도 살 수 있다고 하니 그 대표적인 예가 영화 ‘워낭소리’에 나온 40년 된 소다. 작년 초에 개봉된 워낭소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30개월의 소와 40년의 소는 인간의 기준에 따라 동물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극단적인 예였다. 한 쪽은 동물을 생명으로 보지 않고 단지 먹을거리와 상품으로 취급한 경우였고, 한 쪽은 생명 존중을 넘어 지극한 애정으로 보살핀 경우였다.

왜 소는 생명이 아닌 먹을거리와 상품으로 전락된 것일까? 비단 소뿐만 아니라 모든 사육동물이 그러하겠지만 그것은 고기라는 수요를 빨리 충족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생산기간이 짧아야 더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경제논리와도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성장촉진제로 키워진 고기는 여러 면에서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 특히 성장기의 아들에게 심각하다. 성장기에 고기를 많이 먹으면 키도 크고 체위가 크게 향상된 것 같지만, 사실은 육류와 함께 섭취한 성장촉진제가 웃자라게 한 것이다. 여자 아이들의 2차 성징이 예전에는 중학생 때에 시작되었지만 요즘에는 거의 초등학교 때에 나타나는 것도 성장촉진제가 남아있는 고기와 달걀 우유를 많이 먹기 때문이다. 속성으로 키워진 고기에는 성장촉진제 뿐만 아니라 항생제와 제초제도 들어있다. 항생제를 직접 간접으로 많이 복용하다 보면 약을 써도 균이 죽지 않는 내성만 키워진다.

‘30개월의 소’에는 인간이 동물을 학대하고 그 성장을 조작한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성장촉진제, 항생제, 제초제로 키워진 그런 고기로 인해 스스로 과보를 받는 자업자득(自業自得)의 부작용도 경고하고 있다. 꼭 이렇게까지 생명 있는 것을 조작하여 고기를 먹어야만 할까. 그래도 ‘40년의 소’에서 인간이 동물에게 얼마나 훈훈해질 수 있는가 하는 희망을 본다. 



겨울눈, 겨울나무에서 봄나무어로

최 원 형

길상사 도서관 봉사팀장. EBS와 KBS에서 방송작가로 일했고, 「도시에서 생태감수성 키우기」(랜덤하우스코리아) 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이따금 텅 빈 트랙을 오가는 바람소리와 말라버린 채 차마 떨구지 못한 몇몇 잎들이 스산한 겨울 풍경 한 장을 그립니다. 꽃 지고 잎 지고, 생명 있는 것은 모두 어디론가 숨어버린 듯한 계절, 얼음 얼어 반짝이는 겨울입니다. 12월엔 밤이 가장 긴 동지가 들어있군요. 일조량에 따라 사람의 심리상태도 달라진다니 그래서 밤이 길어진 겨울이 더욱 적막하고 쓸쓸하게 느껴지는 건지도 모를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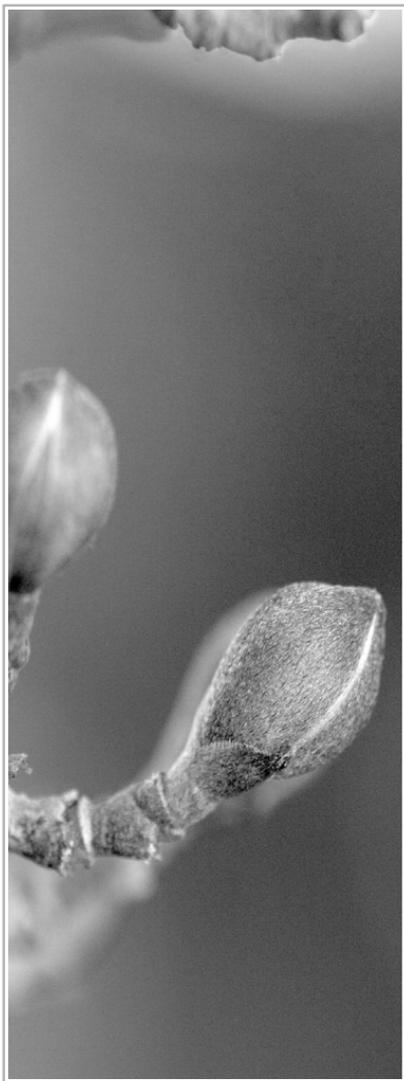
이 황량한 풍경에서 생명들은 진정 자취를 감춘 걸까요? 길상선원에서 길상현 쪽으로 내려가는 계단 근처에서 가지 많은 엄나무를 만났습니다. 실은 엄나무 가지 위로 언뜻 붉은 게 눈에 띄어 가까이 다

가간 거지요. 나뭇가지 끝에 도드라지게 붉은 것이 혹시 꽃인가 싶어 살펴보니 그 정체는 잎눈이었습니다. 잎눈은 내년 봄에 나올 새 잎 혹은 새 가지가 될 부분입니다. 추운 겨울에 벌써 봄을 준비하고 있다 생각하니 안쓰럽기도,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 주변 나무들의 빈 가지마다 고만고만한 ‘눈’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긋나게 혹은 마주나게, 또 어떤 것은 가지 끝에 딱하니 붙어 있는 ‘눈’도 있습니다. 일주문에서 극락전으로 올라가기 전 오른쪽으로 느티나무 옆에 수수꽃다리가 한 그루 있습니다. 수수꽃다리 잎눈의 색깔은 연두에 가까운 밝은 초록입니다. 그 안에서 하트모양의 예쁜 수수꽃다

리 이파리가 숨어 있다 상상하면 경이롭습니다. 고 작은 속에 아이 손바닥만한 이파리가 있다니요.

일주문에서 극락전을 향하는 계단을 끝까지 올라가, 왼쪽으로 눈을 돌리면 산수유나무가 보입니다. 빨간 열매를 매달고 있는 그 산수유나무 가지에는 꽃눈들이 달려 있습니다. 산수유나무는 잎보다 꽃을 먼저 피우니 이 추운 겨울에 산수유나무 가지에 달려있는 건 꽃눈일테죠. 통통하고 동그랗게 생긴 꽃눈 속엔 노오란 꽃잎들이 비좁은 그곳에서 잔뜩 웅크리며 한껏 가슴을 펼칠 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 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내다...’ 김영랑 시인이 노래했던 모란은 지난 봄, 길상선원 앞 꽃밭에서 무척 탐스럽게 피었지요. 꽃도 잎도 다 저버린 모란 줄기마다마다 잎눈이 우뚝하니 달려있습니다. 잎눈인지 꽃눈인지는 눈의 생김새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잎눈은 대개가 길쭉한 반면, 꽃눈은 동그랗습니다. 봄에 꽃이 먼저 피는지, 잎을 먼저



안에 산수유의 노란 꽃잎을 잔뜩 담은 채 겨울을 지내고 있는 꽃눈



봄에 피어날 잎이 담긴 모란의 잎눈과 지난 가을 떨어진 잎사귀의 흔적이 남은 엽흔

띄우는지만 알아도 잎눈과 꽃눈을 구분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거개의 식물들은 잎을 먼저 내고 잎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꽃을 피우는데 산수유나 생강나무, 개나리, 영춘화, 목련 등은 꽃이 잎보다 먼저 나옵니다.

봄날 온 천지를 뽀얀 화사함으로 눈부시게 하는 목련의 눈을 한번 살펴볼까요? 행지실 앞 출입문 바로 왼쪽에 목련이 있네요. 목련은 봄에 꽃을 먼저 피우기 때문에

이맘때쯤 볼 수 있는 눈은 꽃눈입니다. 그리고 보니 목련의 꽃눈은 동그랗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련꽃 봉오리의 자태를 닮았다고 할 수 있겠군요. 어디나 예외는 있게 마련이지요. 목련 꽃눈을 보고 있다면 추위로부터 ‘눈’을 지키려 애지중지하는 그 맘이 엿보입니다. 포라고 하는 껍질로 꽃눈을 겹겹이 에워싼 그 정성에 한 번 놀라고, 꽃눈을 싸고 있는 맨 바깥을 털이 잔뜩 나 있는, 그래서 마치 모피를 입은 것 같은 모습에 두 번 놀랍니다. 추

운 겨울을 견뎌내는 방법으로 목련은 털 코트를 장만한 거로군요.

모란이나 엄나무, 산수유의 경우는 비늘처럼 생긴 포로 눈을 겹겹이 싸고 또 싸서 추위에 견디도록 대비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겹겹이 싸놓았는지 아마 한 번 벗겨보기로 맘먹는다면 대단한 인내심이 필요할 겁니다. 식물의 눈은 식물의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다친다면 더 이상의 생장은 기대할 수가 없기에 이렇듯 철두철미한 방한의 전략을 마련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겨울눈 곁에는 어김없이 엽흔이 있습니다. 엽흔은 나무가 겨울채비를 하느라 떨켜를 만들고 잎을 떨군 자리에 남긴 흔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겨울눈은 나무의 미래, 엽흔은 나무의 과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를 딛고서야 비로소 미래가 가능하며 그 둘은 현재에 공존하고 있군요. 나무마다 잎사귀가 달려있는 모양이 다르니 그가 남긴 자국인 엽흔 역시 나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잎 지고 텅그마니 가지만 남은 나무의 정체를 알고

자할 때 엽흔은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엽흔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작은 점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마치 점자처럼 보이는 그 점들은 잎사귀에서 생산한 양분과 뿌리에서 빨아올린 물이 서로 운반되던 물관과 체관 즉 관다발이 있던 흔적입니다. 관다발의 크기나 개수는 나무에 따라 다릅니다. 이렇게 다양한 관다발의 모양 때문에 엽흔의 모습이, 어떤 것은 사람이나 동물 혹은 곤충의 얼굴표정 같기도 합니다. 엽흔의 모양을 보며 이런 저런 상상을 하는 일은 꽤나 즐겁습니다.

생기 잃은 나뭇가지라 생각했던 곳엔 이미 봄의 청사진이 뚜렷합니다. 다만 눈길을 끌어당길 2프로가 부족할 따름이지요. 엽흔은 나무에게 지난봄부터 가을까지의 추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잎사귀를 떠나보낸 상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일체유심조라 했던가요? 마음 먹기에 따라 아픈 상처는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도 있고, 즐거운 상상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오늘, 겨울나무에서 봄나무로 건너가는 길목에 얻어드립니다. 



아들과 함께 걷는 길

민 일 영

법명 범의(凡衣). 대법관. 길상사 신도. 민요와 판소리 동호회 ‘소리마루’ 회원. 여행을 좋아하고 ‘산따라 길따라(www.mymins.com)’를 운영하며 명상의 삶을 추구하고 있다.

“...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을 ‘부권 상실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없고 아빠만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아버지는 없고 아빠만 있는 시대’의 또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아이에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오래된 길이야기를 하고, 아이가 태어난 대관령 너머의 오래된 집과, 삶의 거울처럼 홀롱했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며 그 아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 스스로 깨닫게 하고, 또 작게나마 삶은 이런 거란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참으로 소중한 여겨야 할 것들,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들, 그리고 어른이 되어가더라도 어린 시절의 잃어버려서는 안 될 자연과 우주의 거울들에 대한 이야기를 대관령의 푸른 나무와 그 나무가 선 길섬의 작은 들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

〈이순원 ‘아들과 함께 걷는 길’〉

지난 일요일, 모처럼 여유가 생겨 이순원의 ‘아들과 함께 걷는 길’을 펼쳤다. 오래 전에 아들한테서 생일선물로 받은 책인데, 그동안 서가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었다. 작가는 굵이굵이 대관령 60리 길을 아들과 함께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이 책을 읽으며 나는 언제 아들과 길을 걸어 보았던가 생각해 보니 까마득하다.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간 후로는 없었던 듯하다. 가을이 끝나가는 때 수북하게 널린 낙엽을 밟으며 아들과 손잡고 고궁이라도 걷고 싶다. 그러나

작은 아들마저 대학생인 마당에 그게 당치나 한 이야기인가. 일장춘몽을 아쉬워하며 지난 2000년 가을, 말썽이(작은 아들의 별명이다)와 창덕궁을 다녀왔던 일을 떠올렸다.

• 대화 1(버스를 기다리며)

나 : 천 원이면 너와 나 두 사람 버스요금이 되니?

말썽이 : 그것으로는 모자라.

나 : 너는 초등학생 요금을 내면 되잖아.(말썽이는 키가 작아 초등학생처럼 보인다)

말썽이 : 아빠 판사 맞아? 판사가 법을 안 지키려고 해?

나 : …(음, 한 방 먹었네)

종로 2가에서 내려 허리우드극장을 향해 걸었다. 당시 상영 중이던 공동경비구역(JSA) 영화표를 예매하기 위해서였다.

• 대화 2(낙원상가의 건널목에서 보행자 신호 대기 중)

말썽이 : 차가 안 오는데 그냥 건너갈까?

나 : 야, 너 판사 아들 맞아? 판사 아들이 법을 안 지키려고 해?

말썽이 : …(머쓱한 표정이다)

나 : …(후후, 복수했다)

영화표를 산 후 창덕궁까지 걸어갔다. 일부러 큰길을 벗어나 골목길로 들어섰다. 한옥들이 눈에 들어온다. 대부분 여관이나 음식점으로 쓰이고 있지만 틀림없는 우리 전통가옥이다. 하지만 말썽이는 믿기지 않는 듯 정말 한옥이냐고, 일부러 한옥처럼 꾸민 것 아니냐고 몇 번을 되묻는다. 아이의 질문에서 점차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하다. 돈화문 앞에는 옛날 복장을 한 수문장 두 명, 포도대장 한 명이 서 있어 볼거리를 제공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들의 표정에는 한 치의 변화도 없는 엄숙 그 자체. 하루 종일 저런 표정을 하고 있으려면 무척 힘들겠다고 말썽이가 제 판에는 걱정을 한다.

고궁 관람이라는 것이 본래 유유자적하는 맛이 있어야 제격인데, 안내원을 따라 단체로 관람을 하려니 이상하고 어색하기 짝이 없지만, 어찌랴,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

차라리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다. 덕분에 모르던 것을 배울 수 있을 테니 좋지 않느냐고.

창덕궁은 조선 태종 5년(1405년)에 세워진 궁궐이다.(경복궁은 정궁(正宮), 창덕궁은 이궁(離宮)이다.) 세조 때는 궁궐의 규모를 넓혀 15만여 평에 이른다. 임진왜란 때 불에 탄 것을 광해군 2년(1610년)에 완전히 복구하였고, 이후 고종 때 경복궁이 중건(重建)되기 전까지 270여 년간 역대 임금들이 이곳에서 정사를 살폈다. 일제시대인 1917년 내전(內殿)이 불에 타자 경복궁의 교태전과 강녕전을 헐어 옮겼다.(그것이 지금의 대조전과 희정당이다.) 처음 궁궐을 세운 태종, 이를 확장한 세조, 그리고 복구한 광해군, 모두 장자승계가 원칙이었던 조선시대에 작은 아들로서 왕위에 오른 풍운아들이다. 그들의 즉위는 늘 많은 사람들의 피를 불러왔는데 왜 하나같이 정궁인 경복궁을 마다하고 이 창덕궁을 선호하였을까? 그로부터 몇 백 년이 지난 지금 나는 왜 큰 아들은 집에 놔두고 작은 아들만 데리고 와서 저 궁

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창덕궁의 관람은 금천교를 건너면서부터 시작된다. 인정전(仁政殿)으로 향하는 첫 관문인 진선문(進善門)을 들어서니 의외로 경내가 조용하다. 보기 좋게 깔린 돌길을 가리키며 안내원이 말하기를, “이름하여 어도(御道)이니 지금부터 모두 왕이 된 기분으로 이 길을 걸어 보세요.” 어도를 조금 걷다 보면 이내 왼쪽으로 인정전의 웅장한 모습이 시야에 들어온다. 왕들의 즉위식, 결혼식, 신하들의 하례, 외국 사신 접견 등 공식행사가 열렸던 곳이다. 크기나 모양이 경복궁의 근정전과 다를 바 없다. 그런데 그 이름이 묘하다. 조선을 건국해 한양에 도읍지를 정하고 정궁인 경복궁을 세운 태조는 그 궁의 정전을 ‘근정전(勤政殿)’이라고 이름지었다. 부지런히 정사를 살피겠다는 뜻이리라. 그런데 그 뒤를 이어 형제간의 살육전을 거쳐 왕위에 오른 태종은 이궁인 창덕궁을 세우고 그 정전(正殿)을 ‘인정전’이라고 이름지었다. 어질게 정사를 살피겠다는 뜻이리라. 나라를 처음 건국한 태조

와 살육전을 거쳐 즉위한 태종의 왕으로서의 마음가짐이 같을 수는 없었으리라. 인정전의 처마 위에 세워진 동물 조각들은 잡귀를 물리친다는 잡상(雜象)으로 안내원은 맨 앞에서부터 서유기에 등장하는 삼장법사, 손오공, 사오정이라고 한다. 이것도 경복궁의 근정전과 대비되는데, 근정전에는 11개인데 비해 이곳은 9개밖에 없다. 정궁이 아닌 이궁을 선호한 작은 아들의 콤플렉스가 곳곳에 배어 있는 느낌이다.

인정전을 지나면서부터는 각종 전각이 계속 이어진다. 왕이 평소 신하들과 국사를 논하는 편전인 선정전(宣政殿), 왕의 처소로 어전회의실로도 사용한 희정당(熙政堂), 왕과 왕비의 침전이자 왕비가 거처하는 중궁전인 대조전(大造殿) 등이 그 중 눈에 띄는 것이다. 선정전은 우리나라 궁궐에서 현재 유일하게 남아 있는 청기와 전각이다. 특이한 것은 대조전(大造殿)의 지붕이다. 이 지붕에는 용마루가 없다. 그 이유는 용에 비유되는 왕이 상주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 건물 안에 이미 용이 있으니 지붕에 다시 용마루를 둘 이유가 없다

는 것이다. 다른 궁궐도 마찬가지로 여서 왕이 거처하던 건물에는 용마루가 없다고 한다. 대조전은 말그대로 큰 것을 만드는 곳이니, 왕과 왕비가 ‘다음 대의 왕’을 만드는 곳이었을 터이다. 그러나 지금은 큰 것은 고사하고 작은 것조차 만들지 못한 채 관광객의 웃음소리만이 들릴 뿐이다. 인절은 간데 없고 추초(秋草)만이 나그네를 맞는다. 그렇게 역사는 흘러가는 것일까. 대조전의 옆으로 이어지는 건물에는 많은 방들이 있다. 여기서 다시 이어지는 대화.

• 대화 3(대조전 옆 건물들의 방 앞에서)

말썽이 : 아빠 이 많은 방들을 누가 썼어?

나 : 글썽, 왕비를 모시던 상궁들이 자던 곳 아닐까? 상궁들은 늘 왕비 가까이 있어야 했으니까.

안내원(아마도 부자간의 대화를 엿들었나 보다) : 여러분이 고궁에 오시면 많은 방들을 보게 되는데, 그 용도를 알려면 먼저 바닥을 보세요. 바닥이 마루로 되어 있으면 그곳은 낮

에 일상 업무를 보던 곳이고, 온돌로 되어 있으면 잠자던 곳입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지체가 낮은 사람들도 하더라도 그들이 거처하는 방만큼은 바닥이 전부 온돌이었습니다.

이럴 때 인본사상을 떠올리면 너무 거창한가. 아무튼 안내원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운다. 내 나라의 전통문화에 관해 너무 아는 게 없는 나 자신이 부끄럽다. 대조전 옆 건물들의 방은 바닥이 모두 마루이다. 약간 답답한 느낌이 들 정도로 계속 이어지는 전각들을 벗어나니 갈림길이다. 한 쪽은 낙선재(樂善齋)로 이어지고 다른 한 쪽은 후원, 이른바 비원으로 이어진다.

낙선재는 현종 13년(1847년) 후궁 김씨의 처소로 지은 곳이다. 이를테면 별채인데 영친왕비인 이방자(李方子) 여사가 임종 때까지 살던 것으로 더 알려진 곳이다. 그동안 이름만 듣다 막상 와보니 꼭 사대부집에 온 기분이다. 그만큼 건축양식이 궁궐과는 영 판판으로 그냥 세도가의 집을 연상케 할 따름

이다. 왕이 거처하던 궁궐 안에 이런 식의 집을 지었다는 것이 신기하다. 혹시 왕의 권위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던 시절(현종 때면 세도정치가 극성을 부릴 시절이다)이었던 것과 무슨 상관관계는 없을까 생각해보지만 무지랭이의 생각으로 그친다.

창덕궁의 꽃은 아마도 후원(後苑)일 것이다. 한때는 창덕궁이란 말보다 후원의 별칭인 ‘비원(秘苑)’이란 말이 더 일반화되어 비원이라고 해야 사람들이 알아들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창덕궁 창건 당시부터 조성된 후원은 말 그대로 뒤뜰이다. 왕이 산책하며 머리를 식히던 곳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연못(부용지, 애련지, 반도지)과 정자(부용정, 주합루, 연경당 등)가 있다. 그리고 샘물(옥류천)이 흐른다. 말쑥이는 인정전 등의 전각에서 이곳 후원까지 왕이나 왕비가 가마를 타고 왔을까 걸어왔을까가 꽤나 궁금한 모양이다. 설마 산책길을 가마를 타고 왔겠냐고 대답하긴 했지만, 제법 먼 길인지라 예상하기가 힘들다.

부용지와 그 물가에 세워진 부용정이 후원의 백미(白眉)이다. 부

용지 주위의 풍경은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아름답다는 말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달력이나 화보집에서 그 아름다운 모습의 사진을 흔히 볼 수 있는 정자가 바로 부용정이다. 부용정의 주춧돌 중 두 개는 우리의 전통 양식 그대로 연못에 놓여 있다. 이는 정자에서 노니는 선비가 발을 씻는 것을 상징한다. 그리고 그 발은 단순한 발이 아니라 선비의 마음을 가리킨다. 이 아름다운 후원을 언제부터인가 ‘비원(秘苑)’이라 불렀다. 영문으로는 SECRET GARDEN. 누가 붙인 이름일까?

후원에서 서쪽으로 비탈길을 오르면 돈화문까지 산길이 이어진다. 경복궁, 창경궁, 덕수궁 등 다른 궁궐에서는 보기 힘든 풍경이다. 사실 창덕궁의 조감도를 보면 전각들이 차지하는 터보다는 숲이 차지하는 공간이 훨씬 넓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이 창덕궁의 자랑인지도 모르겠다. 아니 어찌 보면 그 때문에 정궁의 자리에서 비껴나 있었는지도 모른다. 아무려면 어떠랴. 여기 저기 둘러보느라 지친 관광객에게는 더 없는 휴식공간인 것을. 이곳

에서만큼은 그냥 유유자적하면 되는 것이다. 그 유유자적의 발걸음이 끝나는 곳에 700년 된 향나무가 한 그루 용틀임을 하고 있다. 용틀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한 사람은 바로 이 향나무를 찾아가 보면 된다. 머리부터 꼬리까지 어찌면 그리도 승천하는 용을 닮았을까. 마치 누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 같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창덕궁을 나와 허리우드극장으로 갔다. ‘공동경비구역’은 관람객 250여만 명의 ‘쉬리’의 기록을 깨고 4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화이다. 한국 영화의 기념비적 작품이 될 두 영화가 모두 국토 분단의 비극을 실감나게 그렸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작품의 시대상황을 반영한 것일까.

• 대화 4(영화관을 나서며)

말썽이 : 아빠는 쉬리가 더 재밌어, 아니면 공동경비구역이 더 재밌어?

나 : 글썽, 긴장감은 쉬리가 더한 것 같고, 감동적인 면은 공동경비구역이 더 나은 것 같다. 웃기는 장면도 많고….

말썽이 : 공동경비구역은 작품성과 오락성이 모두 별 넷이야.

나 : …(이 놈이 별 것을 다 아네. 잠시 뜬을 들인 후) 근데, 너는 만일 전쟁이 난다면 이병헌과 송강호가 서로 상대방을 향해 총을 쏘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아니면 그 반대니?
말썽이 : 당연히 쏘아야지, 전쟁인데. 그렇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지.

(後記) 창덕궁을 다녀 온 후 궁궐에 관하여 무지함을 한탄하던 중, 신문에서 ‘우리 궁궐 이야기’(홍순민 저, 1999)라는 책을 보았다. 곧바로 구입해 창덕궁 편을 펼쳤더니 거기 ‘비원’에 관한 글이 있어 여기에 옮긴다. ‘통분(痛憤)의 염(念)’으로. 

“창덕궁은 창덕궁이지 왜 비원인가? 비원이란 창덕궁 북쪽 뒷편의 원유-숲을 가리킨다. 조선 당대에는 비원이란 이름은 거의 쓰이지 않고, 후원(後苑), 북원(北苑), 금원(禁苑) 등으로 불렸다. 그러다가 1903년(광무 7년) 11월에 창덕궁 후원을 관장하는 기구로서 비원(秘苑)을 증설하면서 비원이라는 명칭이 쓰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때의 비원은 원유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는 관서를 가리키는 것이다. 비원이 창덕궁 뒷편의 원유 자체를 가리키는 뜻으로 널리 쓰이기 시작한 것은 일제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순종 연간부터였다. 일제는 이곳을 비원-비밀스런 원유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토오 히로부미를 비롯한 실력자들이 순종과 함께 그 곳에서 연회를 베풀었다. 나중에는 웬만한 관리들은 자유롭게 그 곳을 드나들었으며, 더 나중에는 일부러 일반인들을 그 곳으로 끌어들이어 관광지로 삼았다. 후원이 비원이 되면서 비밀스러워진 것이 아니라 누구나 와서 구경하고 ‘벤또’ 먹고 벚꽃 구경하고, 동물원 식물원 구경하는 곳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니 비원이라는 이름이 널리 퍼지고 입에 익을 수밖에. 그러한 저간의 사정이 해방된 지 여언 50년이 넘도록 여전히 지속되어 창덕궁은 간 데 없고 비원만이 남은 것이다. 이름으로만 봐서는 궁궐이 아닌 놀이터만이 남아 있는 셈이요, 조선의 역사는 사라지고 일제의 흔적만 남은 셈이다. 이름은 그것을 쓰는 사람들의 의식을 반영한다. 여전히 창덕궁이라는 제 이름을 버려두고 비원이라는 이름을 고집하는 한 우리는 아직도 일제시대를 살고 있는 셈이다.”



노래에 젊음을 싣고, 희망을 싣고

- 서울시립수락양로원 노래봉사팀 -

이 성 학



어르신들은 처음에는 어색한 듯 노래를 안 하시려고 한다.

“난 박자도 못 맞춰요!”

허허롭고 단조로운 양로원의 일상, 거기에는 기력은 떨어지고 여기저기 편찮으신지라 자식이나 손자輩의 봉사자들이 노래를 시키면 대개 주춤거리신다.

하지만 음악치료는 이런 분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과 함께 활력을 드리는 것이 목적이다.

“아이~ 할아버지, 우리들이 함께 부를게요. 무슨 노래할래요?”

“허~참~ 난 못하는데”

그러다가 고른 곡이 ‘목포의 눈물’이다.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면
삼학도 파도 깊이 스며드는데
부두의 새악시 아롱 젖은 옷자락
이별의 눈물이나 목포의 설움”



할아버지는 어느새 노래 속에 젖어든다. 머리는 백발, 이마엔 주름살, 피부는 검버섯. 인생무상이라지만 노래 부를 때에는 젊은 시절로 돌아가신 듯하다. 봉사자들은 가끔 이런 모습을 보고 눈물을 글썽인다. 왜 그러느냐고 물으면 돌아가신 아버님이 생각나서란다. 생전에 아버님께는 이렇게 못해드렸는데, 이곳에 와서 뒤늦게 아버님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내가 처음 수락양로원에 간 날, 오랜만에 남자 봉사자가 왔다고 한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고 얼굴을 어루만졌다.

“난 아들이 없어”

돌보는 자녀가 없는 무의탁 노인들만 계시는 곳인지 자식에 대한 외로움이 큰 것 같다.

“어머님, 제가 아들이 되어드릴

게요.”

할머니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진다.

식당 옆에 마련된 조촐한 무대. 이순화 선생님은 열성적으로 전자 오르간을 치고, 오은주 모듬장은 가사가 적힌 패도를 넘기며 박수를 치고 있다. 벌써 7년째 봉사하는 오은주님은 실질적으로 이 모임을 이끌어가고 있다. 4년째 봉사하는 홍선주님은 어르신들의 노래를 유도하는 것이 베테랑답다. 어르신들도 얼굴이 익어서인지 말씀을 잘 듣는다. 다른 봉사자 이은주, 박주효, 광경은님도 한 분 한 분 어르신들에게 자식처럼 열성을 다하고 있다.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푸른 잎은 붉은 치마 갈아입고서 남쪽나라 찾아가는 제비 불러 모아

봄이 오면 다시 오라 부탁하노라.”

‘가을’이라는 동요는 태어남과 죽음이 자연의 섭리임을 가르쳐주는 듯하다.

나이 드시면 다시 어린애가 된다는데, 어르신들에게 동요는 정서적으로 참 좋은 것 같다. 아리랑을 부르는 할머니는 덩실덩실 춤을 추시며 소녀 같은 표정을 지으신다.

“저 할망구 춤도 잘 추는구먼.”

누군가 할머니를 추켜세운다. 한 할머니는 허리가 아파서 더 못 앉아 있겠다며 떠나신다.

“아프다고 방에만 누워있으면 더 아파. 노래하면 늙지 않아”

열성적인 왕 할아버지의 말씀이다. 어르신들의 잠긴 목소리, 떨린 목소리, 박자와 음정 맞지 않는 목소리가 봉사자들의 심금을 더 울리

고 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신 후 더 자신감을 찾고 활력을 찾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모두에게 탬버린을 나누어주자 일제히 탬버린 소리에 묻힌다. 탬버린 소리가 마치 피안으로 안내해주는 자장가 같다.

지난주 봉사자들은 노래봉사 후, 맑고 향기롭게 2010년 나눔행사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겨울용 방한복을 전해드렸다. 활짝 웃으시며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에 봉사자들은 한없는 기쁨을 느꼈다.

‘노래에 젊음 신고, 희망 신고’

시립수락양로원 봉사팀의 어르신들에 대한 사랑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와 함께 노래 불러요.” 

■ 서울시립수락양로원은

서울시립수락양로원 설립주체는 서울시이며 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이다. 1968년 4월 7일 서울시 직영 ‘시립양로원’으로 개원한 후, 1983년 ‘시립노인요양원’으로 기능이 변경되었고, 2010년 5월 1일 다시 ‘시립양로원’으로 기능을 전환하였다. 수용인원은 90명, 현재 75명의 노인들이 생활하고 있다. 음악치료사는 이순화 선생님이며, 맑고 향기롭게는 2003년부터 음악치료의 일환인 노래봉사를 하고 있다.



마당 쓰는 윤력, 마음 닦는 청소

모 아 라

11월 중순 이후, 청초했던 길상사는 낙엽폭탄을 맞은 듯이 보였습니다. 밤새 떨어진 낙엽을 아침에 쓸어 놓지 않으면, 어떤 곳은 정강이 높이만큼이나 발이 푸욱 꺼져 자칫 위험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수련생들은 일요일 아침이면 사중에 계시는 스님들과 마당을 쓸거나 도량 곳곳을 청소하는 윤력(雲力)을 합니다. 윤력이란 여러 사람이 힘을 구름처럼 모은다는 뜻으로 일반인에게는 노동을 뜻하나 사찰에서는 수행의 수단으로 여깁니다. 법정 어른스님의 책 곳곳에서도 “一日不作 一日不食”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도 말라는 백장선사의 가르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마당을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에게 휴일 아침 마당을 쓰는 일은 바쁘다는 핑계로 잊고 지냈던 ‘마음 닦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길상사 - 맑고 향기롭게 선수련회는 불자·비불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참선 경험 없는 초심자, 참선수련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 모두 심도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템플스테이 체험후기 공모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 문화사업단에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참가자 후기를 통해 신뢰도 높은 홍보 및 콘텐츠 확보를 위해 “템플스테이 체험후기”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12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http://event.templestay.com> 사이트에서 접수하며 분량은 200자 원고지 5장 내외 및 사진을 포함합니다. 길상사 선수련회에 참가하셨던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맑고 향기롭게 실천덕목

마음을 맑고 향기로운 마음을 늘 지니고 살기 위해
참선수행을 하고 좋은 글을 항상 가까이 합니다.

-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외로운 이들, 결식이웃들을 위해
작은 정성이라도 나누고 덜어주기를 성심껏 합니다.

-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우리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며 생명의 존엄을 배우고
사소한 일상생활일지라도 생태적으로 살고자 합니다.

-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묘희원(5일, 매월 첫째 일요일)

(소감 : 김광수 모듬장)

이른 아침. 짙은 안개 속을 헤치며 묘희원에 도착했다. 엇그제만 하더라도 덥다고 느껴졌던 이곳도 쌀쌀한 날씨와 함께 가을이 찾아왔다. 곧 추운 겨울이 오면 추위에 견디기 힘든 신 어르신들과 이곳 식구들을 위해 더 열심히 도와드려야 할 것 같다.

오늘은 파손된 도로 복구공사, 묘희원 내 나무가지 잔재물 제거, 밭에서 총각김치 뽑아 다듬는 일을 했다.

파손된 도로를 들여다보면 마치 나무판에 물의 흐름과 방향, 물의 양(힘)에 따라 구불구불하게, 혹은 깊고 낮게, 또 장애물(돌)이 나타나면 돌아서서 흘러간 자국을 임의로 새겨놓은 것만 같다. 작은 물방울의 힘은 대단찮게 보이지만 이들이 합치고 모이면 평상시에는 빨려만 들어갔던 흙을 번쩍 들어 운반도 하고 이 과정에서 흙을 패이게 하고 고랑을 만드는 막강한 힘과, 또한 이동하다 장애물이 생기면 돌아가는 지혜로움도 엿볼 수 있다.

묘희원 내 뜰을 정리하다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정취를 맛볼 수

있다. 특히 가을에 정문입구 부근 등나무와 이름 모를 커다란 나무의 낙엽을 쓸 때면 낙엽이 다시 쌓여 청소한 것 같지가 않다. 하지만 낙엽이 다시 한 번 보아달라고 살며시 앉아 기다리는 것 같아 한 아름 두팔로 껴안아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내년엔 새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하며 내려놓는다. 이곳의 김장 일정이 사정에 의해 우리가 참여하는 매월 첫째 일요일이 아닌 11월 27일 토요일로 정해졌고, 또 묘희원 측에서 별도로 김장봉사 요청을 한 상태라 회원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니 흔쾌히 참석하겠다고 한다. 오후 작업은 밭에서 총각김치를 뽑아 다듬기였다. 뽑고 나니 경운기 화물칸 1대분이었다. 식당 앞마당으로 이동시켜 놓은 후 건강이 허락되시는 어르신들과 함께 김치를 다듬었다.

진인선원(14일, 매월 둘째 일요일)

(소감 : 이금재 모듬장)

여느 때처럼 경복궁 건춘문 앞에서 모여 진인선원에 도착했다. 오전에 주방일, 오후에는 공연으로 어르

신들을 위로했다. 어느덧 다음 달이면 올해의 마지막 자원활동이니 만감이 교차한다. 진인선원 자원봉사 활동팀은 마지막까지 초심을 가지고 활동할 것이다. 다음 달은 좀 더 전문적인 분을 모시고 어르신들을 위한 송년회 잔치를 열자는 의견을 모았다.

전화말벗봉사(매주 한 통화씩)

봉사자별 월간활동 공유

(담당 : 엄경숙 모듬장)

전화말벗 봉사팀은 현재 90여 가구의 독거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주 1회 안부전화로 이웃 간의 정을 나누고 있다. 현재 활동하는 봉사자는 10명. 주로 홀로 사는 분들께서 전화말벗을 통해, 자신이 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도록 말씀을 많이 해주신다. 우리는 살면서 가끔 나 혼자라는 생각에 외로워할 때가 많다. 아프거나, 혼자 밥 먹을 때, 하루에 전화벨 소리 한 번 울리지 않을 때...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뿐만이 아니지요. 이럴 때 전화말벗 봉사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드릴 것이다. 2010년 나눔행사로 올해는 따뜻한 조끼와 바지, 목도리를

선물해드렸다. 소포로 보내드릴 분은 보내드렸고, 봉사자들이 직접 찾아뵙고 전달한 분도 계시고, 최근에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실태조사겸 방문하기도 하였다. 선물을 받으신 분께서 봉사자와 사무실로 감사의 전화를 많이 주셨다.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래본다.

서울노인복지센터(월요팀)

(담당 : 권미자 모듬장)

■ 10월 25일 최윤선 - 늦지 않고 일찍 가서 준비해야지 하고 열심히 갔는데도 저보다 먼저 서두르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 바로 식사하러 안국역까지 오신 어르신들이다. 걸음걸이에 기운이 없다. 식사를 하시면 슈퍼맨 할아버지가 될까? 그런데 식사를 많이 하셔도 여전히 느릿느릿 세월의 무게를 느끼게 한다. 할아버지, 할머니 중 식사를 아주 많이 하시는 어르신이 꽤 많이 계신다. “더 많이 줘, 아침을 못 먹고 왔어. 더 아니 더”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식사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배가 고픈 게 아니고, 마음이 텅 비어 버리셨나보다. 텅 빈 마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까하고, 눈도 마주치고 “맛있게 드셨어요? 제가 식판 갖다 놓을까요?” 하며, 자꾸 말도 붙여본다. 그런데 그마저 귀찮아하시는 어르신도 계신다. 그때 잠깐 민망하지만 돌아서면 다시 안쓰럽다. 이젠 내가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어르신들, 감사합니다. 따스한 사람이 되려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요.

■ **1일 권미자** - 오늘은 노인복지센터에서 처음 시행되는 ‘정제단’ 행사를 가졌다. 정제단은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 드린다는 뜻이다. 요즘 후원이 많이 줄어든 탓인지 급식식단에 대한 어르신들의 불만이 많아져 조금 더 어르신들의 입맛에 맞는 식단을 만들고자 만드셨다고 한다. 매일 노인센터직원 한 분, 급식하시는 어르신 한 분, 급식자원봉사자 한 분 이렇게 세 분을 뽑아 미리 식사를 맛보시게 하고 평가를 받아 매달 종합해 급식에 반영한다고 한다. 정제단이 시행되면서 조금이나마 어르신들께 더 맛있고 영양 있는 식사를 드렸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가져본다.

■ **8일 김숙희** - 일요일 저녁부터 천둥 번개에 비까지 내려 월요일 봉사

가는 것에 갈등이 일었다. 하지만 월요일 아침 추운 날씨에도 찾아오시는 어르신들을 뵈니 잠시나마 일어났던 마음이 참으로 부끄럽다. 오늘은 중년에 양복 입으신 신사 분들이 오셨다. 양복 위에 앞치마 하고 A배식대 앞에서 사진 찍느라 분주하다. 배식하다 식판이 없으면 맑고팀 배식판 가지고 어른들께 배식하고 참으로 재미있는 분들이다. 다음번호까지 시간이 남으면 맑고팀 B배식대에 오셔서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궁금하신 게 많은 모양이다. 맑고팀 봉사자 분 한 분이 이곳에서 4년간 봉사하셨다고 해서 참 많이 놀랐다. 날씨 탓하면서 게으름 부린 게 정말 부끄럽다. 오늘도 봉사를 하러 나온 게 아니라 봉사를 배우고 간다.

■ **15일 권미자** -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 일찍 노인센터에 나오셔서 급식시간을 기다리느라 서성이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웬지 더 쓸쓸해 보였다. 아직 김치를 추가로 더 드리지 못하고 다른 반찬도 양이 충분치 못한 중에 오늘은 흥합과 무를 넣어 시원하게 끓인 맑은 국을 드렸다. 다행히 국을 넉넉히 끓여 뜨거운 국물에

홍합을 듬뿍 넣어 드릴 수 있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고깃국은 아니지만 추운 날씨에 뜨끈하게 많이 드실 수 있어서 드리는 봉사자들 마음도 따뜻했다.

■ **29일 최수진** - 오늘은 노인복지관 가는 날. 전날부터 나름대로 완벽하게 준비하고 일찍 갔는데 어느새 많은 보살님들이 여유 있게 앉아 담소를 나누고 계셨다. 아차! 난 아직 한수 아래구나. 복지관에서는 설거지, 음식배식, 정리정돈 등 2천 명이 넘는 많은 어르신이 오시기에 생각보다 일이 많다. 그런데도 보살님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힘들다는 말씀 하나 없다. 그저 은은한 미소뿐. 참 이상하다. 한 번쯤 힘든 내색을 할만도 하련만... 그래서일까 어르신들도 참 편안히 식사하신다. 오늘 맑고 향기롭게 팀은 설거지를 했는데, 육개장이라 그릇이 두 배로 나왔다. 모두들 구슬땀을 뚝뚝. 식판의 무게가 만만치 않다. 그 무거운 식판을 가뿐히 들며 묘기까지 보이는 분이 있다. 홍일점 남자 거사님이다. 그분이 그렇게 도움이 될 수가 없다. 그분은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까?

오늘도 참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 맛있고, 배부르게 가시는 어르신들의 입맛 다시는 소리, 웃는 모습밖에 본 적이 없는 여러 보살님의 얼굴, 수고하셨다고 격려와 칭찬만 해주는 주방 직원분들. 이렇게 웃고, 격려해주고, 염려해주는 이런 세상에 있는 게 오늘은 유난히 자랑스럽다.

서울시립수락양로원
(1, 2, 3, 5주 목요일)
(담당 : 오은주 모듬장)

■ **18일 오은주** - 오늘은 노래봉사 후, 2010년 나눔행사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에게 겨울용 따뜻한 방한복을 전해드렸다. 할아버지들에게는 쥐색 조끼, 할머니들에게는 예쁜 핑크색 조끼가 전달되었다. 어린아이들처럼 기뻐하는 어르신들의 표정을 보니 오히려 우리가 송구스러울 지경이다. 어르신들! 몸도 마음도 따뜻한 겨울 되세요.

승가원(1, 3주 일요일)
(담당 : 홍정근 봉사팀장)

■ **7일** - 싸늘한 날씨를 실감하게 하는 11월 첫째 주 일요일. 이번 주는

청소년봉사자들 몇 명이 시험으로 불참했고, 승가원 아동들도 캠프를 가 평소보다 조출한 인원으로 요가 활동이 진행되었다. 평소보다 적은 인원으로 진행하니, 아동들도 학생들도 집중을 잘하였다. 요가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구호를 함께 외쳐달라고 해서 우렁차게 구호를 외치면서 신나게 진행하였다.

■ 21일 - 이번 주 요가 활동은 조금 특별하게 진행되었다. 생활실 선생님들과 초경을 시작한 아동들의 고통을 줄여주고자, 맑고 향기롭게 김영신 요가 선생님의 지도로 잠시나마 교육의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과 아동들 간의 요가활동은 혼자서 하는 요가동작보다는 자원봉사자와 함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동작을 많이 실행했다. 덕분에 청소년 자원봉사자와 아이들이 한층 더 친해지게 되었다. 승가원 아동들이 대체적으로 요가실력이 좋아지고 잘 따라했다.

결식이웃 밀반찬 조리

(매주 목, 금요일)

(담당 : 최두리 모듬장)

■ 4, 5일 - 여름내 온 담장을 뒤덮

어 한껏 품을 내던 담쟁이가 단풍이 들더니 이젠 자취를 감췄다. 회색시멘트 벽에 철사마냥 딱 달라붙어 죽은 듯 보이지만 또 다른 계절이 오면 강인한 생명력을 보이며 무성한 잎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계절이 바뀌는 것도 힘든 이웃이 많다. 대상자 여러분 겨울이 시작되네요. 건강한 겨울나세요.

■ 11일 - 지난달에 이어 사무국장님 친구 분이 배추를 구입해주셨다. 국장님께서 알아서 하라고 주먹을 불끈 쥐었는지 배추는 아주 튼실하고 묵직해 보였다. 그 결과 풍성한 김치가 됐다. 오늘도 많은 봉사자들이 동참해 뿌듯하다. 배추가 절여지는 동안 떡볶이, 어묵탕, 해물파전, 그리고 매달 파배기를 가져오시는 보살님. 오늘은 통째로 한 개씩 드린다고 여유있게 준비해 오셨다. 오늘이 빼빼로데이. 봉사자님들도 돌아가시는 길에 사랑의 빼빼로 하나 준비하는 센스.

■ 18, 19일 - 지난해 김장통을 올해 회수하기 시작해 조리장 뒤쪽에 쌓아 두었다. 많은 통들이 수거되었고 어제, 오늘은 밀반찬을 일찍 끝낸 뒤



그 통들을 목욕시켰다. 목욕재계를 하고 나니 윤기가 나기 시작했다. 이 통들이 다시 김장독이 되어 대상자분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내년에도 김치 맛나게 다 드시고 파란통이 다시 돌아오면 또 오늘처럼 반복이 되겠죠.

(총 370가구, 단체 1곳)

- 1째주 - 닭볶음탕, 단무지무침
- 2째주 - 김치
- 3째주 - 멸치파리고추볶음, 파래무침
- 4째주 - 비엔나소시지볶음, 오이양파무침

- 결식후원금 10/1~10/31
26,651,800원
익명 빵 400개

결식이웃후원계좌 :
(사)맑고 향기롭게
국민은행 817-01-0255-458



서울모임

맑고 향기롭게 서울 지부 송년회

12월 22일(수) 저녁 7시

길상사 설법전

2010년의 끝자락에서 반갑고 감사한 만남을 갖고자 합니다. 맑고 향기롭게 서울지부 송년회에 회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나온 시간 함께 맺은 열매를 잘 갈무리해 다시 시작할 건강한 씨앗으로 뿌리고자 합니다. 송년의 바쁜 발걸음, 잠시여기, 맑고 향기롭게 송년회에 함께 하셔서 내일을 손수 준비하는 주인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송년회는 깨달음과 나눔으로 청정한 나를 기르고 그 향기로 사회를 맑고 향기롭게 일구는 삶을 살자시던 법정 스님의 뜻을 되새기며, 회원 간 작은 행복을 누리는 시간도 마련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1부(저녁 7:00~7:30) : 서울지부 총회
 - 2010년 실적 보고
 - 2011년 사업 계획 보고
- 2부(저녁 7:30~9:00) : 만남의 시간

대구 맑은세상 한마당 및 이사장 스님 순회법회 원만회향

덕현 이사장스님의 2010년 세 번째 지역 순회법회가 대구에서 제4회 맑은세상 한마당 대구 나눔잔치와 더불어 회원들의 따뜻한 환영과 열정으로 원만 회향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6일(금) 오후 3시부터 4시 40분까지 대구 맑고 향기롭게 사무실에서 인사와 더불어 지역모임 현황과 의견을 듣고 나누는 차담시간을 가진 후 이동하여 5시 30분부터 6시까지 대구 프린스호텔 별관 리젠시홀에서 맑은세상 한마당 대구 나눔잔치로 자체제작한 대구모임 활동영상과 퓨전 국악공연, 합창단의 음성공양이 있었습니다.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순회법회 법요식으로 조미남 대구모임 본부장의 인사말씀, 덕현스님의 강연이 있었으며 강연이 끝난 후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함께 저녁식사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나눔행사로 초대된 분은 대구모임 밀반찬 결연어르신과 대광맹인불자회, 룸비니동산, 새터민을 비롯한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들에게 봉사자들이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국악 공연과 스님의 말씀을 통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느껴보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모임 조미남 본부장을 비롯한 운영위원과 회원, 동화사, 극락사, 운불련 등 지역 신행단체, 지역불자, 초청손님 등 300여 명이 함께했으며 중앙모임에서는 덕현스님과 조영환 이사, 홍정근 팀장, 길상사 배미경 사무차장이 동참했습니다. 1996년 5월 창립된 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은 초창기 새집달아주기, 우리문화유적답사를 비롯한 자연보호활동과 무료급식자원활동 시작으로 활동해왔으며, 현재 매주 수성구 관내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해 밀반찬 전달 봉사활동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소리녹음봉사, 지체장애 어린이시설 방문(룸비니 동산), 노인 요양원(연꽃피는 집) 등 다양한 사회복지, 자원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으며 5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2월 주말 선 수련회 안내

맑고 향기롭게 주말 선 수련회는 참가자들의 수준을 고려해 한 달에

두 번 신참반과 구참반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불교를 갓 접하시거나 이제 수행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신참반에, 수련경험이 있거나 참선을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은 구참반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하기 위해 ‘길상사’와 ‘맑고 향기롭게’가 함께 열여가는 뜻 깊은 수련회가 될 것입니다. 참가를 원하는 분은 길상사 홈페이지 템플스테이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참반: 매월 셋째 주말(12.18~19)
- 구참반: 매월 넷째 주말(12.25~26)

선 수련회 아침공양 자원 활동 모집

매달 셋째·넷째 주말에 열리는 길상사 - 맑고 향기롭게 주말 선수련회 참가자들을 위해 아침공양 준비를 거들어 주실 분들을 찾습니다. 새벽예불에 참석하시거나 집이 가까운 분들 중 마음을 내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모집인원: 3명 내외
- 하시는 일: 과일 깎기, 간단한 반찬조리
- 일시: 매달 셋째 넷째 일요일
- 문의: 02-741-4696/7 香羅 모아라

2010년 결식이웃을 위한 김장 담기 12월 1일~2일 실시

맑고 향기롭게 회원님들이 한마음으로 실시한 이번 김장에는 총 150명이 넘는 회원님들이 참가했습니다. 371가구의 밑반찬 지원 가정에 25kg(약 8포기), 장애인 시설인 지계의 집에 300kg, 청소년시설인 월곡청소년센터에 140kg, 성북2동경로당에 100kg을 각각 전달하였습니다. 총 8,100kg의 절임배추와 무 320단, 갓 350단, 쪽파 200단, 새우젓 120kg, 멸치액젓 170kg, 고춧가루 700근, 마늘 30관, 생강 6관 등 총 예산 3,000여만 원이 들었습니다.

1일 양념 다듬고 만들기에는 50여명의 회원님들이 자원활동을 하였고 2일 속 넣고 포장하는 작업에는 한국, 진흥, 경기 상호신용금고 직원 20명, KTX 나눔회 직원 10명, 본모임 회원님들과 길상사 신도 봉사자 70여명 등 총 150여명 이상의 자원활동가 여러분이 적극 참여해주셨습니다. 올해는 다른 해 보다 남자 회원님들의 참여가 많아 한결 수월하였습니다. 직접 김장에 참여를 해주신 여러분, 뒤에서 격려와 힘이 돼 주

셨던 회원님, 모두모두 감사드립니다.
온정으로 만든 김장 김치, 올해는 유
난히 맛있을 것 같습니다.

기부금 소득공제자료 2010년 1월에 발급

2010년 한 해 동안 본 모임에 보
내주신 정성스런 후원금과 물품에 대
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회원님
들의 정성을 소중히 알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보내주신 후원금 및 물품에 대
한 기부금 소득공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현황을 파악한 후 내년 1
월 10일 즈음에 개별 우송할 예정이
며 또한 올해부터는 국제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후원금 내역에 오류가 있는 경
우는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확인 후
재발행해 드리오니 이 점 또한 기억
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모임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종교 법인으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되어 지정기부금(코드40)에
해당, 소득금액의 10%를 공제받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류 재활용 소품 만들기

안 입는 헌옷을 이용해 소품을 만
들어보지 않을까요? 서툴지만 한 땀
한 땀 채워가는 자연살림법 익히기
강좌가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저희 의류 재활용팀으로 오세요.
헌 옷이 새로운 물건으로 변신합니
다. 바느질법(미싱)도 배우고 헌옷의
가치를 새로 만들어주는 지혜로운 회
원이 됩시다. 의류 재활용은 회원들
이 함께 만들어 가는 소모임입니다.

■ 맑고 향기롭게 환경지킴이

02)741-4696/7

해피빈 - 콩이 만드는 행복한 기부

세상에는 많은 콩이 있습니다. 강낭
콩, 땅콩, 완두콩, 검은콩, 노란콩...
그 많은 콩 중에서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콩이 바로 해피빈콩이라
합니다.

해피빈은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온
라인 기부사이트로 맑고 향기롭게 모
임에서도 해피빈을 통해 온라인 모
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서 메일을 보내거나 배너를 클릭하
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콩을 무
료로 나눠 주고 있는데 그 콩 하나

의 가치는 100원. 네티즌들은 콩을 모아 원하는 기관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이버를 이용하는 후원가족이라면 누구나 콩기부를 통해 본모임으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콩 하나는 작지만 여러 개가 모이면 커지는 법. 언제라도 소외이웃을 돕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해피빈을 통하여 도울 수 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회원님의 참여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 맑고 향기롭게 모임 네이버 해피빈 주소
<http://happylog.naver.com/clean94.do>

결식이웃을 위한 자원 활동가 모집

멀리 있는 행운보다는 가까이 있는 행복을 찾기 바랍니다.

- 밀반찬 조리 자원활동:
매주 목요일, 금요일 오전 9시 반 ~
- 밀반찬 배달 자원활동:
매주 금요일 오후

법정스님 글꼴체 탄생

윤디자인(www.yoonfont.co.kr)에서 한글날을 맞이하여 법정스님 글꼴 ‘법정체’를 만들었습니다. <미리쓰는 유서>에서 한글 사랑 때문에 다

음 생에도 이 땅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하신 스님! 스님의 글은 읽는 이가 그 누구건 너나없이 큰 가르침으로 마음 깊이 자리잡아왔습니다. 이제 스님은 적멸에 드셨지만 솔향기 머금은 법문은 원고지 칸칸을 넘어와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법정체를 다운받으며 기부한 금액은 해피빈으로 자동 적립되어, 연말 도움이 필요한 단체 및 해피로그를 지원하는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다운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윤디자인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글꼴 다운기간 : 2010.10.8~12.15)

12월 서울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길상사 - 맑고 향기롭게 주말 선수련회
/ 신참반 : 12월 18~19일(셋째 주말) /
구참반 : 12월 25~26일(넷째 주말)
- 2010년 맑고 향기롭게 회원총회 / 12월 22일(수) 오후 7시/ 설법전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결식이웃 후원 밀반찬 조리 자원 활동
/ 매주 목, 금요일(12월 1, 2, 9, 10, 16,

17, 23, 24, 30, 31)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맑고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 / 양념이 묻어도 좋을 일복 차림
(※ 12월 1~2일은 김장)

- 2010년 결식아이를 위한 김장 / 12월 1일(재료준비), 2일(김치담기)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 준비물 : 앞치마, 면장갑, 고무장갑, 모자
- 묘희원(치매노인 요양시설) 일손 돕기 정기자원활동 / 11월 27일(토) / 오전 8시 30분 / 지하철 2, 4호선 사당역 10번 출구 한전 남부지점 앞 / 간편복(모희원 김장봉사) / 일반 자원활동가
- 진인선원(치매노인 요양시설)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자원활동 / 둘째 일요일(12월 12일) 오전 8시 20분 경복궁 건춘문 앞 출발
- 서울시립수락양로원 노래봉사 자원활동 / 1, 2, 3, 5주 목요일(12월 2, 9, 16, 30일) 오후 1시 30분 / 함께 노래 부르기 /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 1번 출구 집결 / 일반 자원활동자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무료급식 자원활동 / 매주 월요일(12월 6, 13, 20, 27일), 매월 첫째 수요일(12월 1일) 오전 10시~오후 2시 / 배식, 설거지, 식탁정리, 수저 나누기 등 / 다른 요일 자원

활동자도 수시 모집 중 / 자원활동자 교육 후 봉사

- 승가원 장애아동시설 정기 자원활동 / 첫째, 셋째 일요일(12월 5일, 19일) / 오전 9시 30분~12시 / 청소년 봉사자
- 전화말벗봉사 정기모임 / 12월 1, 2일 (김장담기 참여)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천연화장품 / 매주 수요일(12월 1, 8, 15, 22일) 오후 1시 30분(삼푸, 로션, 세럼, 한방비누 순) / 소강당 옆 거사림 / 선착순 8명 마감 / 재료비 본인 부담
- 의류재활용 강좌 / 매주 화요일(12월 7, 14, 21, 28일) 오후 1시 30분 / 소강당 옆 거사림 / 선착순 10명 마감

〈기타 활동〉

- 봉사팀 모듬장 회의 / 12월 28일(매달 넷째 화요일), 오후 7시 30분 / 서울모임 사무실
- 소식지 발송 / 12월 6일(분류 12월 1일)

일반사업후원계좌 :

(사)맑고 향기롭게

국민은행 817-01-0253-129

부산모임(051-898-2672~3)

12월 부산모임 정기활동 안내

- 홀몸어르신 밑반찬 지원활동
1 / 8 / 15 / 22 / 29일(매주 수요일)
10:00~12:00
- 장애우 이동목욕
1 / 8 / 15 / 22 / 29일(매주 수요일)
09:00~13:00
- 연화원 어르신 목욕보조 및 시설정화
2 / 9 / 16 / 23 / 30일(매주 목요일)
10:00~13:00
- 부산시 노인전문 제1병원 치매어르신
목욕봉사
2 / 16일(1, 3주 목요일) 9:00~13:00
- 부산시립의료원 노인병동 목욕봉사
9 / 23일(2, 4주 목요일) 10:00~13:00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점심급식준비
2 / 9 / 16 / 23 / 30일(매주 목요일)
09:30~13:30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도시락 전달
3 / 10 / 17 / 24 / 31일(매주 금요일)
10:30~13:00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장애우 이
동목욕
3 / 10 / 17 / 24 / 31일(매주 금요일)

10:00~12:00

- 부산시립노인전문병원 어르신 목욕활동
3 / 10 / 17 / 24 / 31일(매주 금요일)

09:30~12:00

- 3일(금) 참선모임
(매달 첫 번째 금요일)
- 4일(토) 물론대 종합사회복지관
(매달 첫 번째 토요일)
- 14일(화) 참사랑노인건강센터
(매달 두 번째 화요일)
- 21일(화) 지역정화활동
(매달 세 번째 화요일)
- 21일(화) 사상구장애인복지관
(매달 세 번째 화요일)
- 24일(금) 용두산공원 무료급식
(매달 네 번째 금요일)
- 25일(토) 용두산공원 무료급식
(매달 네 번째 토요일)

경남모임(055-266-0170)

12월 경남모임 정기활동 안내

- 보현행원(무료 노인요양원) 정기 자원
활동 - 매월 셋째주 수요일(12월 15일)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말벗되

- 어 드리기, 청소, 빨래, 점심준비 등
- 자비공양의 집(무료급식소) 자원활동 - 매월 넷째주 화요일 오전 10~14시(12월 21일) / 매주 토요일 오전 10~14시(12월 4, 11, 18일) / 창원 사파복지회관 내 식당 / 점심준비, 설거지, 배식 등
 - ‘봉림청소년문화의집’ 방과 후 아카데미 - 저소득층 공부방(초등·중등 40명) 지원 / 매월 첫째주 목요일 오후 5시(12월 2일)
 - 결연세대 정기방문 자원활동(은비네 외 10가구) -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4시(12월 10, 24일) / 쌀, 밑반찬, 생활용품, 학용품 등
 - ‘선 수련모임’ 안내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12월 3, 10, 17, 24, 31일) / 열린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주 수요일 오전 11시(12월 22일) / 사무국
 - 맑고 향기롭게 ‘청년회 회원’ 모집 - 삶에 열정을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 / 가입신청 사무국 ☎(055)266-0170
 - 친환경 수세미 판매 - 경남 회원이 아크릴사로 손뜨개한 친환경 수세미 구입 / 구입문의 ☎(055)266-0170
 - 운영위원회 - 12월 22일(수) 19시 성주사

대구모임(053-753-8883)

12월 대구모임 정기활동 안내

- 덕현 스님의 대구 지역 순회법회 및 맑은세상한마당이 지난 11월 26일 대구 프린스호텔에서 3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 홀로 어르신 밑반찬 조리 및 말벗(배달)나누기
 - 매주 수요일(1, 8, 15, 22, 29일) / 11시 - 음식조리, 19시 - 말벗(배달)봉사 / 자원봉사자수시모집
- 소리봉사 / 녹음봉사
 - 매주 월요일 - 개별녹음 / 정기모임 : 매월 셋째 금요일(17일) 오후 7시 (예정)
- 룸비니동산 자원봉사 활동
 - 매월 둘째 토요일(11일) 오후 2~6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활동
 - 21일(화)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
- 황금복지관 주방보조 및 기타정리 봉사
 - 매월 첫째 화요일(7일) 11시부터
- 첫마음 정기 편집회의 / 둘째 토요일(11일) 오후 6시
- 정기총회 / 17일 오후 7시 / 대구 사무국

광주모임(062-236-3129)

12월 광주모임 정기활동 안내

- 광주지부 제6대본부장 고현 교수 취임
지난 11월 24일 12시 30분 지장왕사 2층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고현 본부장은 “중요한 일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새로운 결의를 다졌다. 지장왕사 회주 현장스님은 “맑고 향기롭게 지금까지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봉사해 왔는데 이제부터는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사회적 역할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치하했다. 조촐하게 진행된 취임식 후 고현 신임 본부장은 참석자에게 합장주를 선물하고 봉사자들이 직접 마련한 음식으로 점심공양을 했다. 고현 본부장은 1949년 전남 장흥에서 태어나 조선대학교 응용미술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학장 및 디자인대학원 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조선대학 디자인학부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취임식에는 현장스님(지장왕사 회주), 운영위원 조병욱(前 조선대 부총장), 박혁규(목우 한의원 원장), 이은정(농협 용봉지점 차장), 이철기 세무사, 승만

행 위원과 이해모(광주전남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금강화 사무처장, 법정택 원각사 청년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 법정스님 영상설법

광주 맑고 향기롭게에서는 매월 1,3주 금요일(12월 3, 17일) 오후 2시 법정스님의 영상설법이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무소유의 지혜를 가르쳐주신 법정스님을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 맑고 향기로운 도시락 배달

광주 맑고 향기롭게에서는 매주 월~금 각화복지관과 연대하여 관내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에게 80개의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봉사자 20명이 요일별로 조리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쌀, 양념류, 생필품 등을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리시간: 오전 10~12시)

■ 맑고 향기로운 독서모임

법정스님 책읽기 모임(12월 대상도서: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 독서지도: 이신(통일사회연구소 소장) / 12월 23일(매월 지장재일) 오후 2시 맑고 향기롭게 광주 사무실

■ 생활 속의 참선(예정)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 지장왕사 법당



<불교입문강좌 겨울학기>

불교를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한 불교입문강좌 겨울학기가 12월에 개강합니다. 불교에 다가서는 첫 걸음을 입문강좌에서 체계적으로 해보세요. 내 안의 불성(佛性)을 찾아 떠나는 여행의 출발점! 길상사 배움터입니다.

- 개강: 12월 9일
-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저녁 7시 30분(야간반)
- 문의: 교무실 3672-0036(* 홈페이지 자세한 내용 참고)

<길상사 김장 올력 안내>

겨우내 길상사 공양간을 든든하게 지켜줄 김치를 마련하는 김장을 12월 14일(화), 15일(수)에 합니다. 일손이 많이 필요한 김장올력에 불자님들의 동참 바랍니다.

- 일시: 12월 14일(화), 15일(수) 오전 9시
- 장소: 송풍각 뒤 공터
- 준비물: 앞치마, 고무장갑, 면장갑

<아침·저녁 좌선수행>

매일 진행되는 아침·저녁 좌선수행은 수행 경험이나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동참하실 수 있으며, 시간에

맞춰 입실하시면 됩니다.

- 시간: 아침 좌선 - 오전 7~9시, 주지 덕현스님 / 저녁 좌선 - 저녁 7~9시 / 유나 지공스님
- 좌선수행 동참자를 위한 주지스님의 즉문즉답은 매주 토요일 아침 8시에 있습니다.
- 좌선을 처음 배우려는 분들에게는 주말 선수련회에 먼저 참여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주니어 챔버, 새터민 예술반이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주니어 챔버와 새터민 예술반 아이들이 주축이 되어 2010년을 회향하는 송년음악회가 12월 29일(수) 길상사 설법전에서 열립니다. 이 행사는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주관하며 당일 길상사 설법전에서는 아이들의 사진과 만화작품도 전시합니다.

- 일시: 2010년 12월 29일(수) 오후 2시~6시 30분
- 장소: 길상사 설법전

<12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및 기도>

- 일요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 설법전

- 토요법담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설
법전
- 삼천배기도 / 12월 11일(토) 8시 반
- 극락전 기도 매일 새벽 4시, 오전 10
시, 저녁 6시
- 지장전 기도 매일 새벽 4시, 오전 10
시, 저녁 6시
- 거사림 정기법회 / 1, 3주 일요일 오후
1시 / 설법전
- 보현회 정기법회 / 매달 음력 초하루 /
12월 6일 오후 1시
- 문수회 정기법회 / 매달 셋째 월요일 /
12월 20일 오후 1시
- 지장회 정기법회 / 매달 둘째 월요일 /
12월 13일 오후 1시
- 합창단 정기법회 / 매달 넷째 화요일 /
12월 28일 오후 1시
- 보리회 정기법회 / 매달 첫째 월요일 /
12월 6일 오후 1시
- 청년회 정기법회 / 매주 일요일 오후 1
시 / 도서관
- 어린이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 소강당
- 청소년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도서관



지난 11월 17일 길상사 극락전에 올려졌던 공량미 360kg이 맑고 향기롭게 봉사 지원 시설인 서울노인복지센터에 전달되었습니다.

알뜰한 시장, 알뜰한 마음

맑고 향기롭게 알뜰시장을 아시나요? 봄부터 가을까지 매달 마지막 일요일 설법전 앞에서 열리는 알뜰시장은 회원들이나 뜻있는 분들의 기증품으로 열리는 친환경 나눔의 마당이지요.

현책, 현옷, 천연화장품, 친환경용품으로 구성되는 생생한 아나바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현장. 그곳에서는 흥재한 듯 희희낙락한 표정을 짓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로 현옷이 인기가 높지만 천연화장품의 인기도 만만치 않더군요.

두 달 전에 5,000원 주고 남성컴비를 구입한 모씨는 지금도 그 옷을 입고 뿌듯한 표정을 지으며 알뜰시장을 기웃거립니다.

“에센스와 로션이 겁나게 좋다”는 할머니는 그걸 사러 먼 곳에서 오셨는데 차비 빼면 뭐가 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에 맑고 향기롭게표 천연샴푸를 쓴 어떤 분은 고질적인 피부병이 나았다며 고마움의 표시로 떡을 해오기도 했는데 다 알뜰시장에서 구입한 물건들입니다. 내게는 필요 없는 물건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활필수품이나 귀한 물건이 되니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알뜰한 시장에는 알뜰한 마음이 오고갑니다. 팔다가 남은 물품은 다시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하고요. 아쉽지만 2010년 알뜰시장은 11월을 끝으로 문을 닫고 내년 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기증하신 분, 봉사하신 분. 모두모두 복 받으실 겁니다. ^^* 